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현대불교

원격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성현관] MBC-TV 리브하우스, KBS1-TV '우리가 만든 미래' 등
 중앙일보와 KTDD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공처] 중도시 백문암, 문산면도 불암정, 경산 불암사, 불암 정안사,
 서울 불암사, 목동산 불암사, 포천 정안사, 개령 불암사, 법흥사 등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i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2월 29일(음력11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506호

찾아가는 문화복지가 뜹니다

불교복지 '정신빈곤' '소외지역'으로 확산
 타종교 비해 늦은 편... 재정·전문가 부족

불교복지의 패러다임이 '앉아서' 맞는 소극적 복지에서 '감동을 안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복지로 바뀌고 있다.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복지가 '정신적 빈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미흡했던 불교복지 활동의 방향이 문화와 정서순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문화복지란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정신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복지서비스로,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 개념을 도입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도 1990년을 기점으로 이를 받아들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가 이처럼 문화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방적인 '퍼주기 식' 복지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물질문명 속에 현대인들이 느끼는 '정신적 공핍'을 문화적 복지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현실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효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복지가 21세기형 '웰빙복지'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의 정서적 만족감은 물론, 일부 계층에만 국한했던 문화의 향유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또 이런 변화는 최근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12월 16일 발족한 '문화복지연대'로 이어져 불교도 문화복지 실천에 합류하게 됐다.

본지가 12월 현재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에 등록된 476곳 시설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노인복지센터, 삼전복지관 등 전국 40(12%)여 곳의 시설들이 문화복지 서비스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유형은 음악회, 연극공연, 전시회 등 문화형 역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공연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늘 푸른 예술단', '종물동아리', 음악공연은 삼전복지관의 '소리샘', 대구불교사회복지회의 '햇빛촌 달빛촌 축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혜 대상 역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서 지역주민 전체로 확



또 한해가 저무는데...
 한 해가 지듯 한 손가락의 밥이 목구멍을 넘어간다. 힘겹게 넘어가는 한 손가락의 시름은 중요공원에서 한 시간을 기다렸다 무료급식을 하는 노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자비 넘치는 세상이 그러운 세모에 우리는 서 있다. 한해
 를 훌훌 털어버려, 새해에는 더 많은 자비와 행복의 세상이 오길 염원하며...
 사진=박재원 기자

산되고 있다. 서울 은평노인복지관 소속의 '은빛어르신 봉사대'는 인근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전통무용 공연을, '서울 연화복지원'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술과 국악 공연 등을 선보이고 있다. 또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늘 푸른 예술단'은 인근 병원, 양로원 등을 찾아 부채춤, 검무, 율조공예 등의 문화공연, '종물동아리'도 인사동 거리 공연, 지역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수혜자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얼마 전 '늘 푸른 예술단'의 역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공연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늘 푸른 예술단', '종물동아리', 음악공연은 삼전복지관의 '소리샘', 대구불교사회복지회의 '햇빛촌 달빛촌 축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혜 대상 역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서 지역주민 전체로 확

람을 내비쳤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복지단체와 문화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불교문화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의 공유와 상호협조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간 차원의 공식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과 정부가 별도의 문화복지 예산을 편성해 불교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시설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문화복지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으며, 양질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자원봉사자 육성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화복지연대 김중엽 상임대표는 "각계 문화인들과 사회복지사들이 결합한 문화복지연대가 문화복지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주요 사회적 이슈인 복지관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병철 기자

임제선원 조실 종성 스님 21일 원적

본사에 장사 3만권 기증... '종성문고' 조성

24일 영결·다비식 엄수

임제가풍을 이은 당대의 선지식 종성 스님(임제선원 조실·사진)이 12월 21일 입적했다. 세수 75세 법랍 37세. 스님은 "기계가 등환의 세상에 노닐다/오늘에 크게 고요히 쉬 도다/맑은 바람 건곤에 부는데/해는 서산머리에 떨어지도다(優遊夢幻世/今日大寂休/清風拂乾坤/日落西山頭)"라는 임종계를 남겼다.

영결식은 24일 오전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열렸으며, 당일 장사 백양사에서 다비식이 엄수됐다.

1930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전주대학교를 나와 원광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던 종성 스님은 1968년 38세의 늦은 나이에 본격적인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92년 서울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의 정법을 제산장실(濟山丈室·제산=종성 스님의 법호)에게 부촉하노라'라는 전법계를 받고 은법 제자가 됐다. 90년대 초부터 봉선동 관안사 기슭에 임제선원을 열어 수행과 재가 불자들의 선 수행 지도에 전념해 왔다.

“어디서든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로 출·제가 불자들을 지도해왔던 종성 스님은 “수행은 주어진 여건에서 깨달음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닦으면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이는 중국조사선을 완성한 임제선사의 '일체시 일체(一切時一切處) 어디에서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참이 되게 하라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교학에도 철저했던 종성 스님은 최근 평생 모은 장사 3만여 권을 본사에 기증하기도 했다. <선종전서>>선장 등 방대한 분량의 선학 관련 서적들과 각종 대장경은 물론, 정치 과학 사회 전반의 서적에서 평소 스님의 독서편력을 엿볼 수 있다. 본사는 기증받은 장서들로 '종성문고'를 조성, 독자들에게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송년호 특집 안내	
본지선정 2004 10대 뉴스	4면
2004 주요 종단 결산	8면
본지선정 올해의 인물	14면

“인터넷 활용 해외포교 활성화 박차”

법장 스님, 간담회서 밝혀

12월 22일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기공식을 앞두고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장 스님은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 인터넷 포교”라며 이 같이 말하고 “지원센터 내 국제간화선 센터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시킨 뒤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포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장 스님은 또 “동남아권 불교국가 우수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세계 우수 불교학자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주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달라이 라마 방한과 관련해 법장 스님은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면 스님들이 산속에서 정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벨평화상도 받을 수 있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사·남동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송산 스님 원적 이후 해외포교 방안과 관련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해외포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할’

아침에 죄짓고 저녁에 참회만하면 끝인가?

너무웃기지 않나? 나쁜일했으면 미명도 좋은 일도 해야지

그림·조태호

월은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궈갈 영구독자를 모집합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TEL: 직통 (02) 737-0090 /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스마트폰 ‘아이벳’ 무료 증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6100 기증,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벳(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 아이벳(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 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벳(i-BUD): 아이벳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중 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 전송: 031) 794-6288
 경기도 하남시 출궁동 180-1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찬덕연등
 e-mail: chanduk21@hanmail.net 한국홈페이지: 찬덕연등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를 취득한 제품입니다. 케이블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